

#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7일 개막... 신비탐사·낙화놀이·불꽃놀이 등 진행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제26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안성 낙화놀이를 비롯해 솟대세우기 등 전통놀이와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으로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번 반딧불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3년 만에 진행하게 돼 벌써부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일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개막일인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한 한중루, 남대천, 예체문화관, 반디랜드와 신비탐사지 등 무주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맞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후원한다.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로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반딧불축제는 드론이 등장해 남대천 일대에서 불꽃향연으로 펼쳐지면서 생태와 어우러지는 야간경관을 새롭게 살리는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27일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무주읍 내도리 산의마을 주민들이 축제 성공을 열원하기 위한 산의실 솟대세우기 재현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산의실 솟대세우기 행사는 내도리 산의마을 주민들의 전통공연으로 정월 대보름날 제액과 초복을 관장하는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던 마을 전통놀이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 낙화놀이는 드론소와 함께 펼쳐지며 8월 27일과 8월 28일, 9월 2일, 9월 3일, 4차례 남대천에서 불꽃 향연으로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안성면 주민(금평리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하고 있는 낙화놀이는 한지에 쓴 뽕나무와 숲, 소금 뭉치(100~200개 정도)를 줄을 맨 긴 장대에 달아 불을 붙이면 활날리는 불꽃으로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3일 무주의 자랑스런 조순왕조실록 이안행렬을 성대하게 진행하고 생태체험행사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국악 및 태권도시범단공연, 무주농악 보존회의 전통공연과 함께 인기가수

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준비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매장도 운영되면서 무주의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 공유’에 목적을 두고 전개된다. 이에 청정환경의 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대외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유인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향토 자원 소개와 상품화로 연계관광 활성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단란, 자부심 및 애향심 고양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은 “이번 무주반딧불축제는 빛을 테마로 한 야간 축제로서의 프로그램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며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별 소풍, 낙화놀이, 드론쇼, 불꽃놀이 연계 등으로 축제기간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일 계북보건지소에서 4차 접종을 완료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독려

### 최훈식 장수군수, 4차 백신 접종 솔선수범 나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일 계북보건지소에서 4차 접종을 완료했다.

최 군수는 솔선수범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장수군은 지난달부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확대된 대상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50대 연령층(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후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18세 이상 감염 취약

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다.

군은 1일 계북면을 시작으로 계남면, 번암면, 산서면, 천천면 등 교통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면 보건지소에서 백신 4차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방송 등을 통해 4차 예방접종을 제고에도 힘을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사망 및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인 분들은 4차 접종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수단인 백신 접종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반딧불축제 친절마인드 강화해야”

### 황인홍 무주군수, 8월 청원 월례초회서 밝혀

황인홍 군수가 1일 제26회 반딧불축제가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감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친절마인드를 강화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8월 월례초회에서 이날 27일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무주군의 위상을 높여왔던 반딧불축제가 3년만에 다시 개최 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절저한 방역태세와 안전대책으로 방문객들이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관광성수기 수용태세와 관련 황 군수는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선제적 계도와 함께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차단하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찰활동을 소홀함 없이 진행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 “8월은 재난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며 “월말에 태풍도 예보돼 있는 만큼 재해위험지구



와 상습침수지역, 그리고 각종 건설현장의 절개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장소부터 사전 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그는 △폭염대비 철저 △세종사무소 기능 활성화에 따른 전 부서 협력 △120개 국정과제 대응철저 △공직기강 확립 △상호 배려하는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에 전 직원들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황 군수는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한 달이 되 달라”면서 무주군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당부의 말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HACCP 재인증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과채주스, 잼, 기타 가공품 3개 유형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HACCP 인증과 함께 안전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과 함께 기술지원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첫 기동을 시작한 이후로 117명의 농업인이 이용, 총 51톤의 농산물 처리를 하며 2021년까지 농업인 판매 매출액 1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

HACCP 인증 시설이 필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하우스 고온피해 예방기술 농가보급 앞장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는 1일 시설 내 열교환 환경개선 기술 도입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며 과일 품질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폭설 등 불규칙한 기상변화로 노지재배는 물론 시설재배 또한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맞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 수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한다. 농가 2곳에 풍향기변형 공기순환팬, 열회수 온습도 환기장치를 보급했다.

이 시스템은 1차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를 통한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면 시설 내부에 있는 풍향기변형 공기순환팬이 뒤쪽으로 공기를 밀어 내고, 마지막으로 열회수환기장치의 배출구로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

이다. 또한 풍향기변형 공기순환팬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공기의 순환을 통한 온도 저하를, 겨울철에는 히터를 통해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모든 작물은 ICT 자동제어 장치로 제어가 가능하며 온도센서를 통해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시키거나, 타이머를 설정하여 시간대별로 작동하는 등 여러 설정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센터는 저·고온기 시설 내 온도보장을 통한 안정성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하여 고온기에는 5℃ 내외 강하를, 저온기는 7% 내외 온도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고경식 소장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온도변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현장보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보건의료원, 농약 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7월부터 장수군 5개 읍·면(장수읍, 장계면, 산서면, 계남면, 계북면)에 설치돼있는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보건의료원·유관기관 간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자살위험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약안전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있어 총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24시간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1393)를 부착해 마을주민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20년 장수읍, 장계면, 산서면, 계남면, 계북면 5개 읍·면 17개 마을에 609개를 보급해 3년 동안 지속적인 사용을 독려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농약 안전보관함을 꾸준히 관리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약안전보관함 관리뿐 아니라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3-350-280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축산환경 소득의 날’ 운영 강화

진안군은 1일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환경·소득의 날’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소득의 날은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소독, △구서·구충 작업, △가축분뇨 상태 자체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군은 여름철 가축분뇨 유실,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축산환경·소득의 날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축산시설 및 농가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SMS 문자 발송,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